

고구려지명의 역사적전승과 강한 생활력

김영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말은 우리 인민이 오랜 역사적기간 가꾸어온 우수한 민족어입니다.》(《김정일전집》 제7권 245페이지)

고구려어는 우리 민족어발전에서 그 기본줄기를 이루어왔으며 그 유산은 오늘날 우리 언어생활의 이모저모에 그 흔적을 남기고있다. 오늘까지도 남아있는 고구려의 언어유산 가운데서 가장 뚜렷한 자욱을 남기고있는것은 바로 지명자료이다.

지명은 구성상 단위어와 표식어로 나누어볼수 있다. 각이한 지형지물의 형태와 특징을 다른것과 구별하여 류형화한것이 단위어이며 동일한 지형지물들을 다른것과 구별하여 붙인 이름이 표식어이다.

단위어는 해당한 지형지물이 변하지 않는 한 오랜 역사적기간에 걸쳐 인민들의 언어 생활을 통하여 전승되어오며 같은 지형지물을 다른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붙인 명칭인 표식어에 비하여 그 전승력이 강한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표식어가 단위어로 호상 전환되어 쓰이는 경우도 있다.

례를 들어서 고구려지명 《比列忽(비리골)》의 경우에 《比列》은 표식어로 되며 《忽》은 단위어로 된다.*

* 고구려어지명의 리두식표기의 해독과 관련해서는 《고조선 및 고구려의 인명과 지명》[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102(2013).]을 참고할것.

그런데 표식어인 《比列》은 《버러/비리》의 표기로서 《벼랑》의 고행으로 된다.

자강도 시중군에는 《별오동(別五洞)》이 있는데 그 고장을 사람들은 지금도 《벼로골》로 부르고있다. 이곳은 감토봉(해발 659m)기슭에 있는 골안으로서 벼랑을 끼고있어 《벼로골》이라고 하였는데 《벼로》는 《벼랑》을 의미하는 《버러/비리》의 변이형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말의 변이형들인 《벼루/ 벼루/ 배르》 등은 고구려령역에 속하였던 평안북도의 녕변군, 태천군, 운산군 등 산간지대에서 각이한 표식어를 가진 단위어로서 널리 쓰이고있다.

- 꽃벼루(갯가지 꽃이 피는 벼랑) 녕변군 연화리
- 샘벼루(중턱에서 샘이 솟는 벼랑) 태천군 신평리
- 생벼루산(중턱에 산양이 다니는 높은 벼랑이 있는 산) 태천군 학봉리
- 판벼루(외따로 높이 솟은 벼랑) 태천군 학당리
- 센벼루골(경사가 급한 벼랑이 있는 골짜기) 운산군
- 대배르재고개(큰 벼랑이 있는 고개) 운산군 성봉리
- 매벼루산(해발 168m의 벼랑이 있는 산) 운산군 마장리

단위어인 《벼루》계렬의 지명이 이 산간지대에 널리 분포되어있는것은 고구려때부터 쓰

이여온 이 고유어휘가 지명에 고착되어 오늘까지 그 생활력을 유지하고있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평안북도일대에는 이밖에도 고구려때 쓰이던 고유어휘들이 지명을 통하여 전해지고있는것이 적지 않다.

례를 들어서 《수리》는 고구려지명 《述尔忽(수리골)》에서 《述尔》로 표기되었던것으로서 이 말은 평안북도의 거의 모든 군에 널려있는 《수리봉》의 경우에 표식어로서 그 흔적을 남기고있다.

평안북도일대에 《수리봉》이 분포된 정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녕변군 망일리
- 향산군 조산리
- 구장군 하장리, 사오리
- 운산군 도청리, 영웅리
- 의주군 미송리
- 천마군 관동리
- 태천군 신평리, 환현리, 상단리
- 창성군 약수리
- 철산군 오봉리
- 운전군 청정리
- 피현군
- 정주시 신안리
- 구성시 조양리

《수리》는 봉우리를 이름짓는데 쓰일뿐아니라 그 골짜기 이름인 《수리골》로도 쓰이고 있으며(대관군 룡산리, 로흥리, 벽동군 대룡리) 《수리고개》(천마군 지경리), 《수리벼랑》(삭주군 방산리) 등 다른 지명에도 붙어서 표식어로 쓰이고있다.

고구려지명의 분포와 관련하여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것은 《~단》류형의 지명과 관련한 문제이다.

평안북도 구장군 사오리에는 《고단》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흔히 사람들은 그것을 옛 성이 있던 곳이라 하여 붙인 이름으로 리해하고있다.

그러나 《고단》의 《고》는 《故國川》의 《故》와 같이 《큰》의 뜻으로 고구려때부터 써오던 말이고 《단》은 《계림류사》에서 《村曰 呑》이라고 밝힌바와 같이 《마을》의 뜻으로 쓰이던 말이다. 이 《단》은 고구려때 《旦, 頓, 堂, 呑》등으로 음역하여 널리 쓰이던 말로서 《谷》의 뜻에 대응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후 그 의미폭이 넓어지면서 《村》까지도 가리키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고단》은 사실상 《큰 마을》을 가리키는 말로서 고구려지명의 전승으로 되는것이다.

이 《~단》류형의 지명은 대체로 옛 고구려의 영역에 분포되어있다.

《고려사》, 《신증동국여지승람》, 《지봉류설》 등에 반영되어있는 《~呑》류형의 지명의 분포정형은 다음과 같다.

경기관내:

- 于次呑忽: 五谷: 玉谷(서흥), 買旦忽: 水谷城(신계), 沙呑島(인천), 吐呑古城(장단),

末吞山(런천), 碧吞石院(포천), 街頓川(고양)

경기관외:

- 習比吞:習比谷:歙谷(흡곡), 於支吞:翼谷:翊谿(안번), 玉堂:羽谷:羽溪(강릉), 巨吞川(간성), 炭吞院(고성), 介吞山(회양), 雪吞嶺(평강), 古未吞(이천), 屯吞院(원주), 立吞院(정선), 个伊吞鄉(녕월), 味吞峴(평창), 史吞鄉(춘천), 伊次吞部曲(충주), 小堂:所湯(제천), 脇吞所(진천), 德頓忽:十谷城(곡산), 皆吞石院(가평), 饒吞驛(광주), 甘彌吞部曲(안성)

우에서 보는데와 같이 이 류형의 지명 38개 가운데서 《吞》이 31개이고 《頓》이 3개이며 그밖의것은 1~2개정도이다.

이 한자들의 중국중고음은 그 성과 운이 같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리두식표기에서 통용되는것으로 보아 그것은 일률적으로 류사음에 의한 《~단》의 표기로 보아야 한다고 본다.

《~단》의 분포에 대한 분석은 이 지대방언의 계선을 확정하는데서뿐만아니라 그 성격을 밝히는데서도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

《買旦》과 《个伊吞》은 다같이 《매[mai]단》을 표기한것으로서 그 의역은 《水谷》으로 되겠는데 고구려지명에서 《買》는 《水》의 뜻 또는 《川》의 뜻으로 대응되어 널리 쓰이고있다.

《古未吞》과 《甘彌吞》은 《고미단》을 표기한것으로서 그 의역은 《熊谷》으로 되겠는데 《甘彌》는 고구려의 다른 지명에서 《功木》으로도 표기되어 《熊》과 대응되고있었다.

《于次吞》과 《伊次吞》은 《우시단》의 표기로서 후에 그것이 《웃단》으로 되면서 《玉堂》으로도 표기하게 되었으며 그밖의 《羽谷, 五谷, 羽溪》등 여러가지로 대응되고있었다.

《우》는 《上》의 뜻으로서 고구려의 인명, 지명, 관직명에 자주 쓰이어 《憂, 優, 于, 乙》등으로 표기되고있었다.

《所吞》과 《小堂》, 《所湯》은 다 《소단》의 표기인데 《소》만을 의역하여 표기한것이 《淵吞》이다.

《習比吞》은 《서비단》의 표기로서 《習比谷》으로 대응되던것인데 후에 그것이 《섭단》으로 되면서 《歙谷》으로 표기하게 된것으로 보인다.

《~단》류형은 고구려에서 널리 쓰이던 지명으로서 그 분포를 통하여 고구려의 령역을 확정하는 문제는 앞으로 고구려사서술에서 응당 주목을 돌려야 할 문제이다.

이 지명들은 오늘 이 령역내에서 생활력을 가지고 쓰이고있다.

강원도 법동군에는 아호비령산줄기를 끼고있는 60리골짜기가 있는데 이곳이 바로 원산군민발전소건설과 관련하여 유명해진 《고미탄》이다. 《고미탄》을 중심으로 한 이 일대의 넓은 지역을 그전에는 《웅탄면(熊灘面)》이라고 하였고 옛 문헌들에서는 《古未吞》이라고 기록하고있는데 그에 대응하는 《熊灘》은 곧 《고미단》이라는 고구려지명을 반의반음역하여 한자말지명처럼 만든것이라고 할수 있다. 결국 오늘의 《고미탄》은 고구려지명인 《고미단》으로서 고구려의 《단》이라는 말이 그대로 여기에 살아있는것이다.

이것은 《단》의 본래 의미인 《谷》의 뜻으로 쓰인 례로 된다.

그런데 고려시기에 와서는 《단》이 《谷》이 아니라 《村》의 뜻으로 쓰이고있었다.

- 村 吞(조선관역어)

◦ 村裏 吞阿柰(조선관역어)

즉 고려말에서는 《마을》을 《단》이라 하였으며 《마을안》을 《단안에》라고 하였다.

조선봉건왕조이후에 《단》이라는 말은 《마을》의 뜻으로 쓰이게 되면서 《端》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도처에 《上端, 中端, 下端》이 붙은 마을이름이 생겨나게 되었다.

《단》이 《村》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에 《단》은 흔히 한자로 음역하여 《端》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그것은 단지 음역자로서 그 어떤 《끝》이라는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것이다. 즉 녕변군 옥창리안에 있는 《상단말》은 《림촌말의 남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인 이름이고 녕변군 하초리안에 있는 《하단동》은 《삼밭끝의 아래마을》이라 하여 붙인 이름인것이다. 《우에 있는 마을》은 《상단》, 《아래에 있는 마을》은 《하단》, 그 중간에 있는것은 《중단》이라고 하고있는데 이러한 지명의 분포는 평안북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이 말들이 한개 리안에서 나란히 쓰이고있는 정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상단, 중단, 하단: 꾀산군 삼단리, 철산군 명암리, 창성군 약수리
- 상단마을, 중단마을, 하단마을: 꾀산군 군산리, 선천군 석화리, 동림군 청송리, 동창군 구룡리
- 상단말, 중단말, 하단말: 정주시 월양리, 녕변군 옥창리
- 상단물, 중단물, 하단물: 철산군 명암리, 검암리

《단》은 행정구역의 이름에서도 쓰이며 도처에 《상단동》(정주시), 《하단리》(괴현군), 《남단리》(꾀산군)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있다.

이처럼 옛 고구려의 령역이었던 곳에는 《단》이 《谷》이라는 본래의 뜻으로 쓰인 《고미탄》로도 남아있고 또 《단》의 뜻이 《村》으로 바뀐 《상단, 중단, 하단》으로도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구려지명 《거무나(今勿奴), 고모달(功木達)》과 같은 《거무(검)/고모(곰)》류형의 지명들이 옛 고구려의 령역에 널리 분포되어있는것도 찾아볼수 있다.

- 거무산 황해북도 신계군
- 거무덕 평안북도 운산군
- 검은산 평안북도 대관군
- 검덕산 함경북도 무산군
- 검덕산 함경남도 덕성군
- 검덕산 함경남도 허천군
- 검덕골 평안북도 태천군 안흥리
- 곰덕 자강도 자성군
- 곰덕산 함경북도 화대군
- 곰덕산 자강도 전천군

《거무(검), 고모(곰)》의 형태변종들인 《가마, 고마, 고무》는 지명의 표식어로서 역시 옛 고구려땅에 분포되어있다.

- 가마동 평안남도 회창군
- 가마고개 평안남도 회창군
- 가마봉 자강도 고평군

- 가마봉 평안북도 구장군
- 가마봉 평안북도 선천군
- 가마봉 평안북도 꾡산군
- 가마봉 평안남도 개천시
- 가마봉 평안남도 녕원군
- 가마봉 강원도 판교군
- 가마봉 황해북도 봉산군
- 가마봉 황해남도 룡연군
- 가마봉 강원도(남) 름제군
- 가마산줄기 강원도(남) 름제군
- 감악산 황해북도 름산군
- 가마산 황해남도 룡연군
- 고마산 함경북도 경흥군
- 고무덕산 자강도 송원군

그리고 《거무더기(檢義德)》에서처럼 단위어로 흔히 쓰이던 《-더기(데기)/-덕》의 경우에도 그것이 옛 고구려땅에 널리 분포되어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 생데기 함경북도 명천군
- 안반덕 함경북도 길주군
- 채덕 함경북도 화대군
- 장덕 함경북도 화대군
- 장마덕 함경북도 경원군
- 허방덕 함경북도 회령시
- 차덕 함경북도 회령시
- 오산덕 함경북도 회령시
- 갈밭덕 함경남도 허천군
- 금부덕 함경남도 단천시
- 순치덕 함경남도 단천시
- 신덕 량강도 삼지연군
- 곤장덕 량강도 보천군
- 난덕 량강도 갑산군
- 배덕 량강도 갑산군
- 왕덕 량강도 혜산시
- 중덕 량강도 풍서군
- 방치덕 량강도 풍서군
- 껌덕 량강도 김형권군
- 사덕 량강도 김정숙군
- 백암덕 량강도 백암군
- 높은덕 자강도 자성군
- 안덕 자강도 자성군

- 응지덕 자강도 장강군
- 구이덕 자강도 중강군
- 신나무덕 평안북도 동창군
- 안장덕 강원도 금강군
- 고비덕 강원도 회양군

《덕》이 높은 둔덕 또는 산을 가리키는 단위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시 《산》, 《령》과 같은 단위어를 덧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덕》이 이미 생산성을 잃게 되면서 그것만으로는 산을 나타내는데서 그 어떤 부족감을 느끼게 된 언어의식의 변화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수 있다.

- 대덕산 량강도 김형권군
- 절덕산 량강도 혜산시
- 곰덕산 함경북도 화대군
- 재덕산 함경북도 명천군
- 넓덕산 함경북도 회령시
- 넓은덕산 함경북도 경원군
- 곤장덕산 함경북도 무산군
- 구름덕산 함경남도 요덕군
- 가래덕산 함경남도 락원군
- 범덕산 함경남도 리원군
- 단풍덕산 평안북도 동창군
- 신덕산 평안북도 대관군
- 새덕산 평안남도 덕천시
- 새덕산 평안북도 구장군
- 새덕산 자강도 전천군
- 새덕산 강원도 평강군
- 곰덕산 자강도 전천군
- 물방덕산 강원도 천내군
- 배덕산 평안남도 북창군
- 안내덕산 평안남도 대흥군
- 매덕령 량강도 김형권군
- 새덕령 황해북도 곡산군

또한 고구려지명에서 《圓》의 뜻으로 쓰인 표식어 《두리》는 오늘에 와서 《도리, 도래, 두루, 두룽, 두류, 두륵, 두른, 두릅, 두룽, 두리》 등의 형태변종으로 전국도처에서 산의 이름으로 널리 쓰이고있다.

- 도리산 평안북도 운산군
- 도래산 평안남도 증산군
- 두루봉 함경북도 온성군
- 두루봉 함경북도 회령시

- 두루봉 자강도 송원군
- 두루봉 전라남도 영암군
- 두루봉 황해북도 은파군
- 두류산 자강도 화평군
- 두류산 량강도 백암군
- 두류산 남포시 룡강군
- 두류고개 평안남도 녕원군
- 두류산 평안남도 양덕군
- 두류산 전라남도 해남군
- 두류봉 량강도 운흥군
- 두류봉 함경남도 북청군
- 두류봉 자강도 성간군
- 두류봉 평안남도 은산군
- 두류봉 평안남도 신양군
- 두리봉 강원도(남) 삼척시

《豆里山》류형의 지명은 옛 고구려땅에는 물론 우리 나라 도처에 널려있어 이 지명의 공통성은 예로부터 존재한 언어생활의 공통성을 말해주는 한 단면으로 된다.

고구려지명의 표식어로서의 《두리》는 산이름뿐아니라 섬이름에도 쓰이었는데 평양에 있는 《두루도》를 실례로 들수 있다.(전라남도 신안군에도 《두리섬》이 있는데 그 모양새가 원형으로 되어있어 그 명명의 표식이 꼭같다.)

이것은 《두리》라는 말이 예나 지금이나 《圓》의 뜻으로 전국적판도에서 변함없이 쓰여왔음을 말해주는것으로서 고구려지명의 견인성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것으로 된다.

고구려지명에는 《두무골(冬音忽)》과 같이 《圓》의 뜻으로 《두무》도 있었는데 이 역시 옛 고구려땅에 그 흔적을 남기고있다.

- 두무산 황해북도 신평군
- 두무산 황해북도 수안군
- 두무산 강원도 이천군
- 두무산 강원도 고성군
- 두무개산 함경남도 금야군
- 두문골산 자강도 초산군
- 두문리 자강도 룡림군

고구려지명의 분포와 관련하여 《나리》의 흔적을 들수 있다. 《나리》는 고구려가요 《동동》에도 나오고 고구려지명에서 《나리마(內乙買)》와 같이 자주 쓰이던 말인데 오늘날에 와서는 많은 경우에 《내》로 변화되었다.

이 《나리》는 비단 고구려에서만 쓰인것이 아니라 신라의 《闕川》을 《阿利那禮(아리나리)》로 표기하고 한편 백제의 《熊川》도 《久麻那利(구마나리)》로 음역하여 표기하고있는 《일본서기》의 기록 등으로 미루어보아 이 말은 예로부터 고구려의 광활한 지역에서는 물론 백제와 신라에서도 공통적으로 쓰이었던 지명이라는것을 쉽게 알수 있다.

오늘날 황해북도 은파군의 은파천에서 북쪽으로 서흥강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뒤나

리고개》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뒤》는 북쪽을 가리키는 말이고 《나리》는 강의 뜻으로서 옛 흔적을 남기고있는 지명이라고 할수 있다. 그밖에도 강원도(남) 평창군 진부면에 있는 《자나리(尺川洞)》, 경상북도 영덕군 오서면에 있는 《이나리(仁川洞)》, 충청북도 영동군 아천면에 있는 《어나리(彦河洞)》 등 아직도 그 흔적이 전국적으로 여러곳에 남아있음을 찾아보게 된다.

이와 같이 고구려의 옛 영역에 분포되어있는 일련의 고유어휘 지명에는 고구려의 언어유산이 다양하게 반영되어있어 그것을 통해서 귀중한 언어사자료를 얻을수 있으며 동시에 세 나라의 언어적공통성의 한 측면을 확인할수도 있다. 한편으로 이 자료는 고구려의 영역을 과학적으로 확증하는데서 도움이 될수 있는 반증자료를 얻을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처럼 고구려지명은 오랜 세월을 거쳐 역사적으로 전승되어오면서 오늘도 우리 민족어의 강한 생활력과 역사적견인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실마리어 고구려어, 견인성, 비리골